



즉시 배포용: 10/5/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

Matilda Cuomo가 이끄는 자문단이 멘토링을 위한 뉴욕주의 다짐을 재확립할 것입니다

새 웹사이트가 뉴욕주 청소년을 위한 기회 창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학교 또는 위탁 가정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직업 및 인생 상담을 제공할 뉴욕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주지사의 모친인 **Matilda Raffa Cuomo** 여사가 공익을 위하여 주재하는 자문단이 이끄는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가장 문제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들 중 일부의 학생들을 식별하고 훈련하며 수 백명의 기업 기반 멘토들과 짝지어줄 것입니다.

뉴욕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출범에 때맞추어 주지사는 지역사회 청소년 멘토링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뿐만 아니라 가용 서비스 및 멘토링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출범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청소년들이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과거 본인의 부친이 약 20년 전에 최초의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멘토링의 길을 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젊은 뉴욕주민들을 돕는 데 다시 전념합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학생들이 학교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다시 한 번 보이고 있습니다.”

Matilda Raffa Cuomo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최초의 전주적 학교 기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의 아들 **Andrew M. Cuomo** 지사 덕분에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이 별에 도달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자문단을 정식으로 주재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돌보아야 합니다—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고 Mario Cuomo 지사는 전국 최초의 학교 기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을 창설하였습니다. Cuomo 여사가 주재한 이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고 졸업장을 따도록 장려하는 한 방법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하고 훈련하여 그들을 지역사회 학생들과 짝지어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995년에 끝나기 전에 뉴욕주의 가장 절박한 학생 약 2,000명을 고도로 훈련된 멘토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연결하여 그들이 학교에서 성공하고 졸업하도록 도왔습니다.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

뉴욕주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의 가장 취약하고 불우한 학생들을 주의 모든 지역에 있는 기업 출신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제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중학교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협력할 멘토들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 및 학교를 위한 지원은 주의 10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각 지역 협의회의 훈련된 코디네이터가 해당 지역의 멘토링 참여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자문단은 불우 커뮤니티, 즉, 빈곤율이 높고 멘토링 프로그램 필요성이 높은 커뮤니티를 식별하기 위해 교육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그러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로 확대할 것입니다.

10대의 깨어있는 시간의 약 40%가 동반자 또는 감독자 없이 보내집니다. 멘토는 10대에게 자유 시간을 보낼 소중한 곳을 제공합니다.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에 의하면 2009년에 9학년에 들어간 학생들 중 25%가 또래들과 함께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15%가 만성적 결석의 위험이 높습니다.

일대일 멘토링은 이러한 부정적 추세를 역전시킬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형식은 자원 봉사 멘토들이 자신의 바쁜 스케줄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 관계에 절실히 필요한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빅브라더 빅시스터 프로그램의 랜드마크적인 공공/민간 벤처 평가는 멘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이 또래보다 하루를 결석할 가능성이 52% 더 낮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멘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청소년들이 또래보다 불법 약물 사용을 시작할 가능성이 46% 더 낮고 음주를 시작할 가능성이 27% 더 낮습니다. 멘토링은 학생들에게 난제를 극복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달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멘토는 청소년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업 자원 및 단체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 베이스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직업 목표를 실현하도록 나아가게 합니다.

자원자는 <https://www.ny.gov/content/get-involved-new-york-state-mentoring-program>에서 지원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멘토가 되기 위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 시정 연설에서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창설로 멘토링에 대한 뉴욕주의 집념 재확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는 학생들을 성공적인 기회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재들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